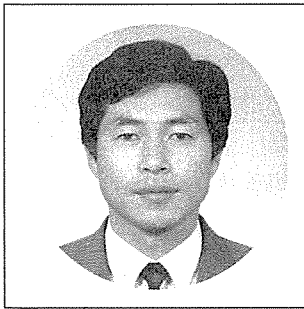


한국의 민가와 흙의 의미

# 흙을 母胎空間으로 인식



姜 榮 煥

울산대부교수·건축공학

## 1. 흙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

나에게 주어진 주제는 한국의 전통민가에 있어서 건축재료로서 흙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전통민가를 근대화 이전까지 지속되어 온 건축방법으로 만들어진 민중들의 주택이라고 할 때, 그들이 흙이라는 건축재료를 왜 선택하였고, 어떻게 이용하여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가지의 전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첫째는 우리가 분석하려는 대상이 과거 민중들의 것이며, 그들의 산물이나 행위의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각이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의 모든 영역이 그러하듯이 건축에 있어서 일정한 재료의 선택과 이용 또한 문화적 행위로서 고유한 배경과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배경과 과정, 방법 들은 종종 가시적인 영역의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에 보여

지는 행위나 산물만으로는 파악되기 어렵거나, 설사 해석된다고 하여도 그들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우리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통하여 유추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과거의 그들이 왜 그러한 행위나 산물을 만들게 되었는지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물을 인식하는 '그들의 식' 대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건축에 있어서 특정한 재료의 선택과 이용은 그 재료에만 국한해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이다. 건축은 다양한 건축요소와 재료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분적 요소들은 하나의 건물 내에서 서로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특정한 부분적 요소만을 독립적으로 분석한다면 체계적인 이해에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건축의 전체적 체계 내에서 특정한 부위와 특정한 재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전제로부터 우리는 과거 민중들이 그들의 집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그들의 식대로 이해하여야 하면서 그들이 어느 건축부위에, 어떠한 방법으로 흙을 사용하

였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집에 대한 민중들의 생각을 분석함에 있어 문자화되어 있는 역사적 기록들은 그리 큰 도움이 될 수가 없다. 그것들은 대부분 민중들을 지배했던 상류계층에 의해서 저술된 것이기에 민중들의 생각이 크게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구전으로 전승되는 민속적 자료는 민중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들의 생활과 생각을 반영하고 있기에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집이란 무엇이었고, 그 안에서 흙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는 한반도의 어디에서나 전승되고 있는 「성주풀이류」의 노래나 安宅에 대한 민간신앙으로 부터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충북 증원에서 채록된 지신밟기 노래의 예를 들어보자.

(상략)

이 터전에 집을 질제(에헤 지저미호) 어느명사  
오셨더냐

(후렴생략)

첫째가는 도선 박사	둘째가는 박상이가
이 터전을 마련할제	좌우산천 둘러보니
좌청룡 되어있고	우백호도 분명터라
보은구복을 발본이라	이 터에다 터를 잡고
이 터전에다 집을 질제	성주목을 모시어라
각도 목수가 다모였는데	성주본이 어딜런가
경상도라 안동땅에	술씨 서말을 뿌렸더니
점점이도 자라나서	소부동으로 자라나서
대부동으로 굶었는데	소부동은 제쳐놓고
대부동으로 골라내어	성주목을 짚어낼제
금도끼로다 짚어를 내고	녹도끼로가 다듬을 제
굽은나무는 젓다듬고	젓은 나무는 굽다듬어
이터전예다 모셔 놓고	아흔아홉칸 집을 지니
상채는다가 용龍자요	하채는 거북龜자
행랑채는 목숨壽자	문간채는 다복福자일세
소슬대문을 높이달제	입자로다 달어놓고
네귀에는 풍경을 달고	동남풍이나 슬슬불면
장단을 맞춰서 덩그랑	이 터전예다 집을 짓고
딩딩 만복록을 누리실제	자손이 창생 복록多고
딸을 낳으면 열녀를 낳고	아들을 낳으면 효자충신

백자천수 만대영화      부귀영화를 누리실제  
(후략)

이 노래는 安宅에 대한 민간신앙에서 가택신의 우두머리인 성주신의 근본을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성주신은 城主, 또는 屋主, 또는 成造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東國歲時記에 이르기를 “十月을 상달이라하여 무당을 데려다가 成造神을 맞이하여 떡과 과일을 베풀어 놓고 安宅하기를 기도한다”는 기록으로 보아 성조의 음이 변형되어 성주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주는 모든 가택신을 대표하며 그들을 거느리는 최고신으로서 특히 집안의 家長인 호주를 보호한다고 믿어졌다.

이 노래에서 성주는 「술씨」가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 뿌려져 성장하고, 그것이 「성주목」이 되었으며, 그 「성주목」으로 건물이 지어져, 사람들에게 만복을 가져다준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성주는 술씨가 자라 「성주목」이 되는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노래에서는 「성주기둥」이 되기도 하고, 「성주보」나 「성주도리」가 되기도 하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초가 성주(초가집)」, 「와가성주(기와집)」, 「루각성주(루각집)」가 되기도 한다. 즉, 성주는 목재로서 집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집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이 노래의 구조에서 보여지듯이 성주의 형성과정이 집 건물의 형성과정으로 비유되고 있다. 집의 건물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듯이 성주신 또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성주라는 신격체의 근본을 밝히는 노래가 집이라는 건물의 형성과정으로 묘사된다는 것은 집의 건물을 성주의 신체로 보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성주가 ‘만들어 지는 과정’은 종종 성주가 ‘탄생하는 과정’으로 묘사되고 있다. 마치 인격체 처럼 생명을 가지고 땅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성주를 탄생하는 것으로 보는 근거는 「성주 생일제」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주 생일제는 상량1주년이 되는 날 치루어지는 의례를 말하는데, 상량식과 더불어 성주신이 탄생되었다고 보고 1주년이 되는

날에 성주의 돌잔치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집의 완성과 더불어 성주신이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성주신이 현실세계의 생명체처럼 태어난다고 그에게는 생명의 근본인 아버지가 있고, 그를 잉태하여 출산한 어머니가 있게 마련이다. 위 노래의 가사를 다시 검토하면 「술씨가 땅에 뿌려져」 신체로서 성주목의 근본이 되고 있다. 신화적 체계에서 소나무는 五行의 木性을 가지며 동시에 東方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해를 상징하며, 하늘의 표상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소나무가 하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면 술씨는 하늘의 생명력을 이어받은 생명의 씨앗으로서 하늘은 성주신의 아버지를 의미하게 된다. 성주의 본을 밝히는 성주본풀이에서는 「성주부친 천궁대왕 성주모친 옥결부인」이라는 대목이 발견되며, 지신밟기 노래의 다른 대목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암시하는 내용이 발견되고 있다.

「하늘님이 물을주고 산신령이 기룬나무

정신없이 기룬나무 성주지동이 빠졌구나」

그렇다면 성주신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위 노래에서 성주목은 풍수상의 좋은 땅에 “모셔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풍수사상은 땅을 만물의 어머니로 간주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으로서 풍수상의 좋은 땅이란 만물을 길러내는 생명력이 넘치는 곳을 의미한다. 땅을 어머니로 간주하는 관념은 고대 동양사회에서 보편적인 것이었으며, 특히 풍수설이 발생, 발달한 중국에서 地母信仰은 튼튼한 신앙이 되고 철학이 되어 대대로 전승되었다. 풍수설은 이러한 지모관념에 입각하여 수립된 것이고, 이 지모의 생산력에 의지하며, 지모의 보육력에서 생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된다. 따라서 신화적 체계로 보면 집의 가택신인 성주는 하늘을 아버지로 하는 생명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 어머니인 땅으로부터 탄생한다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하여 건물로서의 집이 인격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탄생과정과 같이 태어나며, 인체와 같은 형

상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아버지인 하늘로부터 이어받은 「술씨」가 근본이 되어 뼈대로 성장하는 비유를 볼 수 있듯이 집의 목조가구는 인체의 뼈대로 묘사되고 있다. 그렇다면 건물의 뼈대 위에 입혀지는 외피는 무엇인가? 건물이 인격체처럼 형상화되고 목조가구가 인체의 골격으로 비유된다면 그것을 둘러싸는 외피는 당연히 살과 피부로 비유되어야 할 것이다.

## 2. 흙의 쓰임

우리는 민간신앙으로부터 목구조와 흙이 인체의 뼈대와 살로 비유되는 인식체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모든 신화의 구조가 그러하듯이 이러한 신화적 인식체계가, 비록 상징적 표현으로 이루어지지만, 현실적 경험세계에 기반을 두고 출발하였다는 사실은 신화학에서 흔히 인정되고 있다. 인체의 뼈대가 인간의 형상을 유지시키는 구조적 역할을 담당하듯이 건물의 구조체 또한 그러한 역할이 주어져 있기에, 그와 같은 성질(象)과 모양(形)과 쓰임(用)에 맞는 재료와 공법이 선택되었을 것이다. 인체의 살과 피부가 내장을 보호하고 용모를 형성한다면, 건축물의 외피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되었기에, 그와 같은 성질과 모양과 쓰임에 걸맞는 재료와 공법이 선택되었을 것이다. 흙은 이미 살과 본 바와 같이 어머니로부터 얻어진 살과 같은 象과 形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이제 그 쓰임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하겠다.

### 1) 근육으로서의 쓰임

비록 母性의 象과 形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살과 피부로서의 쓰임이 없다면 적합한 재료로 선택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선 인체의 살이 단단하게 굳어져 외력에 대항할 수 없다면 그 쓰임에 적합하지 않듯이 건축물에서의 흙 또는 근육으로서의 내력성이 요구되어 왔다. 흙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서 우선적으로 발견된 것은 점력이었을 것이다. 흙과 물의 적절한 배합으로

부터 얻어지는 점력은 굳어진 땅의 견고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태고시절부터 발견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방법을 구하였을 때 땅의 견고성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흙의 점력을 이용하는 방법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마당이나 기초를 견고하게 다지기 위하여 흙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임원십육지」에 기술된 기초와 뜰을 다지기 위한 방법을 들어보자.

『기초』

먼저 굵은 모래를 일곱치, 여덟치 채우고 물을 많이 뿌린다음 나무달고를 가지고 여기저기 세계 다진다. 달구머리에서 땅땅 소리가 난 뒤에야 비로소 손을 멈춘다. 그런 뒤 다시 모래를 붓고 물을 뿌린 다음 앞에서와 같이 다져 나간다. 대략 반 길의 깊이라면 반드시 예닐곱 차례로 나누어 다져야만 비로소 돌처럼 견고해진다. 모래를 구하기 불편한 곳에서는 누르고 거친 모래라도 가져다가 물을 뿌려 적시면서 앞에서 하던 법대로 층층이 아래로부터 다져가는데 들이는 힘은 배로 늘리는 것이 좋다. 만일 누른 모래라도 없으면 황토라도 구해다가 물을 적시면서 다지는데 역시 앞에서 하던 법대로 한다.』

『뜰』

본래의 흙이 검은 흙무더기로서 거칠고 부서거리며 지저분하고 잡스럽거나, 혹은 붉은 점토로서 딱딱하게 굳어 비가 오면 끈적대고 미끄럽거나, 혹은 저습하여 물이 솟아나고 도랑물을 이루거나 하면 마땅히 뜰 전체를 한 길 반 정도 파내서 본래의 흙을 먼 곳에 버리고 기와 부스러기로 한 겹을 깔 다음 다시 거친 모래와 백토를 가져다가 달고로 다지는데 본래의 상태가 되어서야 그친다.』

물과 흙의 결합으로부터 얻어지는 흙의 내력성은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만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자연적인 은신처로서 인간이 경험한 동혈은 수직구조 안에서 흙의 내력성을 인식시켜 주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수직적 구조체가 요구되

었던 지상주거에서 수직적 벽체의 재료로서 흙의 선택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목재로 골격을 갖추는 목구조법이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에까지 지속되어 온 ‘담집’이나 ‘토담’은 구조체의 재료로서 흙의 쓰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임원십육지」에 기술된 담장에 있어서 흙의 쓰임을 살펴보자.

『담장』

무릇 담벽 쌓는 데 쓰는 흙은 누런 모래(원주: 속명은 石飛乃이다)가 가장 좋고, 황토가 다음이요, 흙토가 가장 나쁘다. 진흙을 만들 때 지나치게 습기가 많으면 자꾸 무너져내려 쌓기가 힘이 드므로 약간만 습기가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앞서 쌓은 것이 이미 너무 말랐을 때는 그 위에 덧바를 때에 물을 앞서 쌓은 윗면에 다 뿜어서 이미 쌓은 것과 새로 쌓은 것의 맞닿은 곳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토담은 판축의 방법을 사용함이 마땅하며 오늘날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다. 누르고 흰 沙土가 가장 내구적이며, 검고 부드러운 더러운 흙과 붉고 가는 점토는 모두 쓸 수 없는 것들이다. 붉은 점토는 특히 나빠서 비가 많이 내리면 융해되고, 햇빛이 내리쬐면 균열이 생겨서 내구적이지 못하다. 혹은 판축을 다 마치고 흙이 아직 다 마르지 않았을 때에 석회와 누르고 가는 사토(원주: 속명은 사백이다)를 말린 말뚝을 섞어서 진흙으로 만들어 안팎의 면에 얇게 바른다. 그러나 진흙을 섞어 만드는 법이 법도가 없으면 균열이 생기고 떨어져나가는 걱정거리가 생기는는 마찬가지이다.』

2) 살(肉)로서의 쓰임

인체의 살이 외부적 충격뿐만 아니라 기후적 요소를 조절하여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건물의 외피 또한 이러한 요구에 대응되어야 했다. 건물의 수직, 수평적 외피들은 보온이나 방풍, 방수, 방습 등 기후적 조건을 조절하는 성능도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미 동혈이나 수혈주거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었던 흙의 기후 조절 능력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

한 것이었다. 구조적 기능을 목구조에 양도한 이후에도 토벽이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은 이러한 성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외부의 기후적 조건을 조절하여 쾌적한 내부공간을 만들기 위한 외벽의 재료로서 흙의 쓰임이 지속된 것은 이와 같은 흙의 성질이 깊이 인식되어 왔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러한 성능때문에 비단 벽체만이 아니라 바닥이나 천정에서도 흙의 쓰임은 일반화 되었다. 특히 집중형 주거문화권에서 흔히 사용되는 <고물반자>는 반자를 위에 10cm이상의 두께로 흙을 덮어 시공하고 있는데, 방의 보온을 위해 필수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다시 「임원십육지」로 돌아가 벽체에 있어서 흙의 쓰임을 살펴보자.

『담벼락』

그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인박, 중박을 설치한다. 다음으로 가시새를 박는데, 손가락 크기의 물푸레나무가지를 사용하여(원주:싸리나무나 다른 잡목도 괜찮다.) 가시새의 의지하여 가로세로 엮어서 삼자리를 만들고 다시 벗짚으로 끈새끼로 튼튼하게 묶는다. 그런 뒤에 누렁고 차진 진흙으로 먼저 그 안쪽부터 바르고, 다 마른 다음 그 바깥쪽도 마저 바른다. 안팎이 완전히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砂壁土를 이용하여 말린 말뚝과 반죽하여 그 위에 얇게 바른다. 이것이 우리나라 담벼락의 제도이다.』

건물의 외피는 이러한 기후조절의 능력에서 더 나아가 불을 제어할 수 있는 성능도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인간이 불을 발견한 시대로부터 불은 인간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불은 인간에게 열과 빛을 주어 어두움을 밝히고, 따뜻함을 얻게 하였으며, 음식을 익혀 먹게하고, 맹수를 쫓게 하는 등 인간의 생활을 바뀌게 하면서 점차 생활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의 위대한 힘은 유용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인간과 그 주거를 태울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불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요구되었다. 흙을 구어 그릇을 만들었던 인간들은 이미 흙의 불연성을 인식하

고 있었다고 볼 때, 생활의 중심자리를 차지한 불을 보존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건축재료로서 흙의 사용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목구조법이 발달한 이후 목재는 뛰어난 구조적 성능을 발휘하였지만 불과는 상극이었기에 구조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흙의 쓰임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벽체, 천정 등을 흙으로 마감하는 일도 중요하였지만 특히 불기와 직접 접촉하는 아궁이나 온돌바닥은 흙과 돌로 마감되는 방법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임원십육지」에서는 불연 재료로서의 흙의 쓰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長生玉法』

하늘이 다섯 가지 재물을 내니 사람들은 그것들을 함께 쓰는데, 물과 불은 모두 재앙이 될 수 있고, 불의 재앙은 그 중에서도 특히 사나운 것이다. 사람의 음식은 불이 아니면 익힐 수 없고, 사람의 잠자리는 불이 아니면 따뜻해지지 않는다. 무릇 불의 재앙은 조심하지 않는 데서 저질러지는데, 시작은 터럭 하나이지만 끝내는 집 전체를 다 태우는 데까지 이른다. 또한 불은 나무(木)를 얻어서 발생하고 물(水)을 만나서 꺼지며, 흙(土)에 이르러서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므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불의 어머니인데 사람의 居室은 모두 나무에서 재료를 얻으므로 재난을 일으키기가 쉽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짝으로서 불을 이길 수 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흙은 불의 아들로서 불을 막을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물은 (화재가) 이미 발생한 뒤에 구하는 것이요, 흙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다. 이미 발생한 뒤에 구하는 것은 공이라고 하기 어렵고,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은 큰 힘이 된다. 이것이 바로 曲突로 바꾸고 뿔나무를 옮겨 화재를 미리 방지하는 계책이 머리를 태우고 이마를 데면서 불을 끈 공적보다 나은 까닭이다....(중략)

일찍이 지난해에 腹裏의 여러 군을 살펴보니 그들이 거처하는 기와집은 벽돌로 처마를 싸고, 초가집은 진흙으로 위 아래를 발라 놓았다. 그

러면 불이 번져나감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불을 끄기도 쉬웠다. 또 따로 창고를 설치하여 그 바깥 부분은 벽돌과 진흙으로 둘렀다. 그것을 土庫라고 부르는데 불이 그 안까지 침범할 수 없었다.』

### 3) 피부로서의 쓰임

건물의 외피는 인체의 피부처럼 기후조절의 능력뿐만 아니라 외모로서 미학적 능력도 요구된다. 인체를 아름답게 보이려는 원초적 욕구로부터 화장술이 발전되어 왔듯이 건물의 외피 또한 그 미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인간은 흙으로부터 원하는 형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조형적 성질을 발견해 왔다. 흙으로 만들어진 선사시대의 각종 토기와 토제 공예품들은 이러한 흙의 조형적 성능을 인식하지 않고는 제작될 수 없는 것이었다. 아무리 내력성을 가진 재료라고 하더라도 요구되는 형태를 적은 노동으로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없다면 건축 재료로 보편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특히 건축물에 대한 미의식이 발달하면서 마감재로서 흙의 가능성도 시험될 수 있었다. 목구조의 발달과 더불어 골조가 노출되어 시각적 요소로 사용되는 골격적 형태(skeleton form)의 아름다움도 추구될 수 있었지만 흙으로 이루어진 면적요소를 통하여 상승된 대비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목구조에서 인식되는 끈고 직중한 힘과 거칠고 균질한 흙면으로 얻어지는 순진하고 투박한 감성은 대비적 조화를 이루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흙의 조형적 성질로부터 마감재로서의 가능성은 다각적으로 모색되어 왔다. 灰는 흙으로 부터 가공된 치장재로서 색채감을 발휘하여 권위 건축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회고 고운 피부'에 대한 미의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조소적 기술의 발달에 따라 면을 조소적으로 장식하는 기법도 발전되었다. 조선시대의 상류계층에서 애용되었던 花草塼이나 影壁 등은 흙의 조소적 능력을 극대화시켜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급기술이 아니더라도, 골

조가 노출되는 것은 피부가 상하여 뼈대가 드러나는 것만큼 추하게 인식되었기에 민중들은 흙의 질감과 색채만으로도 외모를 장식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임원십육지」에 기술된 仰壁과 影壁으로부터 흙의 조형적 성능을 살펴보기로 하자.

#### 『양벽(仰壁)』

집 상부의 서까래 사이를 치올려다 보면 산자가 그대로 노출된 곳이 있는데 그곳을 진흙으로 바른다. 흙이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누런 빛깔의 굵고 차진 모래(원주: 속명은 사벽토이다)를 말린 말뚝과 섞어서 진흙으로 반죽하여 벽을 바른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양벽이라고 부른다.』

#### 『影壁』

(중략)

郭熙가 이를 보고나서 또 새로운 의장을 창출하여 드디어 숨겨있는 장인을 시켜 손바닥에 진흙을 바르지 않고 단지 손으로 벽면의 진흙을 긁어내어 혹은 들어가게 하고 혹은 나오게 하였다. 그것이 마르면 먹으로 그 자국을 따라 산봉우리와 숲, 골짜기 등의 무늬를 만들었고, 다시, 누각, 인물 등속도 만들었는데 완연하게 자연 그대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이를 일러 영벽이라 하였다.』

### 3. 흙의 공간과 의미

우리는 과거 민중들의 인식체계로부터 그들의 집에 있어서 흙의 성질(象)과 모양(形), 그리고 그 쓰임(用)을 검토할 수 있었다. 검토과정에서 볼 수 있었듯이 흙은 단순히 구하기 쉽다는 이유만으로 선택되었고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재료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권위건축에 있어서도 흙의 쓰임이 지속된 것은 경제적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건축재료로서의 성능 만으로도 설명되기 어려운 것이다. 조적식 구조로서 돌이나 벽돌과 같은 재료의 선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 문화권의 조형예술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조형적 규범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들은 표현대상에 대하여 그들이 가치있다고 인정되는 표현의 방식이다. 건축을 조형예술로 이해한다면 전통민가 또는 민중들에 의한 민속적 조형예술이며 당연히 고유한 조형적 규범의 범주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건축재료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행위도 일정한 규범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집이 인격체로서 상징화되어 있었던 과거 민중들의 인식체계를 통하여 건물의 외피가 인체의 살과 피부로 인식되었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외피를 이루는 재료에 요구되는 성능만이 아니라 인체의 살과 피부로 표현될 수 있는 재료가 선택되었음을 보았다. 흙은 어머니인 땅으로 부터 얻어진 재료로서 그 성질(象)모양(形)을 갖추고 있었기에 쉽게 선택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외피의 재료로서 요구되는 성능도 갖추고 있었지만 이러한 성능만으로 선택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흙은 건물이 갖추어야 하는 조형적 규범에 의해 이미 주어졌 있었고, 오히려 그 쓰임(用)에 부합되도록 가공기술과 방법이 만들어져 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특정한 건축부위의 재료로서만이 아니라 흙으로 이루어진 공간의 원초성을 발견할 수 있다. 흙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이미 동혈 주거로부터 경험되어 왔고, 이러한 공간에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고, 성장하며, 마감되었다. 이러한 흙의 공간 속에서 인간은 마치 생명은 잉태하고 길러내는 어머니의 子宮과 같이 母胎空間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이다. 모태공간을 이루기 위한 규범적 요구로부터 흙이 선택되었고 사용방법이 모색되어 온 것이다. 모태공간으로서의 의미와 母性을 갖는 재료로서 흙의 상징성은 주거건축에 흙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본질적 이유라고 보여진다.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많은 건축재료가 개발되어 왔고,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하여

왔다. 특히 산업혁명이후 철과 유리, 시멘트 등은 근대건축의 조류를 범세계적으로 유포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재료들은 내력적 성능이나 환경적, 의장적 성능에서 뛰어난 효과를 증명하였기에 급속한 속도로 문화적 장벽을 뛰어 넘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들이 과연 우리의 건축을 가치있게 하는 규범적 요구에 부합될 수 있는지는 시험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철과 유리와 시멘트로 둘러싸인 공간 속에서 모태공간과 같은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이 인체의 살과 피부로 인식되리 만큼 부드럽고, 쾌적하고, 아름답게 여겨질 수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각 문화권 마다 그들에게 가치있다고 인정되어 온 조형적 규범이 있고, 그 규범하에서 재료의 선택과 사용방법이 모색되어 왔다. 우리 또한 이러한 규범이 주어졌 있었고 오랜동안 지속되어 왔다. 비록 근대화 과정의 격동기 속에서 이러한 규범이 단절되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평가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절의 역사를 통하여 흙의 가능성은 쉽게 잊혀져 왔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에게 적합한 건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 민중들의 생각 속에서 근대화 이전까지 지속되어 온 건축적 규범과 흙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규범이 아직도 우리에게 가치있는 것이라면 건축재료로서의 흙 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地母의 상과 형을 갖는 재료로서, 또한 모태공간을 이룰 수 있는 재료로서 새로운 과학기술과 더불어 새롭게 쓰여 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 이 글은 대한건축학회지 제36권 3호에서 전제한 것임 ..... 편집자